



학이 날개를 펼쳐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한 황악산.

최연의 산 이야기 <18> 황악산 1

봉새가 머무는 곳에 승속이 따로 없구나

<鵬> <僧俗>

백두산(白頭山, 2744m)에서 뻗어내려 남쪽으로 향하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그 높이가 차츰 낮아지는데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2천m가 넘는 높은 산을 지나다가 강원도로 넘어오면 1500m 내외로 낮아진다.

충북과 경북을 가로지르며 서남향을 할 때는 1000m 내외로 더욱 낮아지고, 속리산(俗離山, 1058m)을 지나 추풍령(秋風嶺)까지는 5백m 안팎으로 잔뜩 울퉁하며 한껏 몸을 낮춘다. 이렇게 한껏 몸을 낮춘 백두대간이 황악산(黃岳山, 1111m)을 지나면서 다시 현결한 기상으로 서서히 높아져 민주지산(民主之山, 1242m), 대덕산(大德山, 1290m)을 일구고 덕유산(德裕山, 1614m)에서 크게 기세를 떨친 후 남은 기운을 모두 토해내며 지리산(智異山, 1915m)을 일구어 놓았다.

황악산은 백두대간 상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111m로 그다지 높지 않으나 백두대간이 한껏 몸을 낮춘 추풍령에 있대어 있어 무척 높게 솟구쳐 보이는 지형상의 특징이 있다. 황악산을 경계로 북쪽은 황간(黃澗), 영동(永洞) 땅이고 남쪽은 김천(金泉), 선산(善山) 땅이다.

황악산 북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줄기는 황간 땅을 적시며 물한계곡을 이루고 포성봉(鋪城峰, 933m)에서 흘러내려 반야사를 굽어져 흘러온 송천(松川)과 합류하여 월유봉(月遊峰)을 돌아 영동 땅으로 북서진(北西進)하다가 금강(鎭江)으로 흘러든다. 남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줄기는 직지사 능여계곡을 지나 직지천(直指川)을 이루어 남동진(南東進)하다가 대덕산에서 흘러내린 감천(甘泉)과

김천 땅 황산(黃山) 아래서 합류하여 선산 땅으로 접어들어 해평(海平) 너른 들판을 적셔주고 낙동강(洛東江)으로 흘러든다.

황악산은 육산(肉山)이다. 어려움 없이 넉넉한 품에 안길 수 있는 너그러운 산이다. 황악산 정상에는 큰 나무들이 없어 전망이 장관을 이룬다. 남쪽으로는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의 연봉들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멀리 낙동정맥(洛東正脈)의 산봉우리들이 아련하다. 서쪽으로는 2백여 리 밖에 금남정맥(鎭南正脈)의 산줄기가 구름처럼 펼쳐진다.

황악산은 황학산(黃鶴山)이라고도 불리는데, 학이 날개를 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황학은 누런 금빛 학을 말하는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의 상서로운 새이다. 학은 고아(高雅)한 기품을 지닌 새로서 풍수학에서는 학모양의 산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낳고 기른다고 한다. 학모양의 산에 서린 선계(仙界)의 기운으로 도인(道人)이 많이 나온다고 보았던 것 같다.

<동사열전(東師列傳)>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벽계정심(碧溪正心)이라는 대덕(大德)이 황악산에 숨어 살았는데 승려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환속하여 머리를 기르고 황악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물한리에 은둔했다고 한다. 벽계정심은 조선조 선교(禪敎)의 법맥을 이은 선사로서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 초까지 살았는데, 벽송지암(碧松智巖)과 정원법준(淨蓮法俊)을 제자로 두었고,

서산부용(西山芙蓉), 소요(澇澇), 벽암(碧巖) 등 조선조의 고승대덕들이 거의 모두 그의 법맥(法脈)을 이었다.

이렇듯 불교의 정통 법맥을 전했다는 벽계스님이 환속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조선 초기에 불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같은 시기에 수행했던 무학(無學)이나 함허(涵虛) 스님 같은 이들이 환속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그 의문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다산 정약옹(丁若鏞)은 벽계스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벽계정심 때문에 북산(北山)을 옮기려는 어리석은 것을 그만두고 봉(鵬)새가 날아가는 대로 나는 것을 자꾸 되새겼다.

봉새는 <장자(莊子)>에 나오는 새로 범속을 초월한 무애(無碍)의 경지를 상징하듯 벽계 스님의 환속이 더욱 자유자재한 삶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참된 도(道)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다는 뜻일 것이다.

황악산 서쪽 기슭 물한계곡에서 벽계 스님이 속인(俗人)의 모습으로 은둔생활을 하며 벽송, 범준과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다면, 황악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직지사(直指寺)에서는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받아들일 준비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감자꽃

아내도 아들도 없는 오후의 집은 고요하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세상은 낯설다. 마당가에 서서 나보다 대어섯 배는 큰 나무들을 올려보다가 나뭇가지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눈길을 주고 서있으니, 누구인가? 언제 어디서나 본 듯한 얼굴이건만 조각 하늘도 낯설기만 하다.

‘뿡’. 마루에 앉아 있자니 헛간 강철지붕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밤에 내 마음까지 달궂 떨어뜨린 소리다. 이게 무슨 소릴까? 어디 기둥이라도 썩어 헛간이 주저앉기라도 한 것일까? 지난밤의 입을 떠올리며 소리가 난 곳을 살폈다. 마당에 뒹구는 살구들이 그 제야 눈에 들어왔다. 딱새들도 엄청 놀랐겠구나!

살구가 떨어진 헛간 지붕 밑엔 외벽에 걸여놓은 페인트 강통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 딱새 부부가 있다. 며칠 전부터 교대로 들락거리며 푸른 벌레를 물어다주고 하얀 똥을 물어내는 모습이 분주하게 눈에 잡혔다. 첫 포란에 실패했는지 몰라도 꽤 늦어서야 알뜰기에 들어가 부화에 성공한 부부다. 나무부스러기와 개똥과 이끼를 묻고 강통에 들락거리는 것이 보이는가 싶더니, 동지를 떠나서 새끼들을 부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볼 날이 오늘 내일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번식이다. 하긴 살구꽃이 피었을 때도 어제였다.

언제부터였더라? 생각하니 매미가 울기 시작한 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산속 세상의 흐름은 보이지 않게 흘러간다.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았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심 년이 흐른다.

마당에 떨어져 썩어가는 살구들을 바라보니 10년의 세월이 만져진다. 먹고 술도 담고 잠도 만들어야 하는 이에게 한 병씩 주면 때도 이젠 옛날인가?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깝다는 마음도 들지 않으니 이것은 또 무슨 변화인가?

이것은 또 무슨 변화인가? 아직 감자꽃이 피어 있을라? 집 뒤 밭에 심어놓은 감자가 어찌됐나 싶어 밭길을 옮겼다. 잠시 잊고 있었던 생각이 들면 썰 때가 되는 것이

감자였다. 사람들은 감자일을 더 굵게 하려고 감자꽃의 목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꽃을 따주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농부들의 삶을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어찌든 따주면, 살랑살랑 바람에 일렁이는 하얀 모습이 예뻐서도 한 꽃이었다.

언제 이렇게 가꿔놓았을까? 아내도 그새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나?

감자밭 아래에 자리한 밭이었다. 지난해에 고추를 심었던 밭이어서 울퉁 무언가를 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곳에 아내가 채소밭을 일구어놓았다. 이젠 우리 집 세 사마 락을 농사만 짓자고 했었다. 채소는 눈에 잘 띄는 손바닥만한 터에 팽이로 북북 긁어 퇴비나 서너 포대 넣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있는 대로 심는 대로 심어놓는 대로 심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밭은 없었지만 아내는 내 생각이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쩐지, 아랫집에서 오이와 토마토 양배추와 배추 호박 등의 모종을 주는 대로 받아 들고 오더라. 아내의 속마음이 얼얼하니 작은 웃음이 나도 모르게 피어난다. 채소밭은 아내에게 밭상과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했다.

밭은 볼수록 영락없는 밭상이다. 고추장을 찍어먹는 오이가 밭상 오른쪽에 오르는 것과 같이 밭에서도 오른쪽 한쪽을 차지한 채 지지대를 기어오르고 있다. 왼쪽으로 양배추와 배추 줄이 있고 밭에 넣어먹는 콩도 중간쯤에 한 줄 자라고 있다. 앞부분에 심어놓은 상추는 이미 다 자라 뜯기고 또 뜯기면서 키를 키웠다. 작년에 등성등성 자라났던 아욱도 씨앗이 떨어진 상태 그대로 썩을 퇴위 자란다. 호박은 그다음 줄. 수박과 참외는 후시 인 두 뒤편에서 줄기를 뻗고 있다. 왼쪽 맨 가장자리엔 간식거리 옥수수도 자란다. 얼무도 무성하게 커서 옥수수 앞부분을 차지하여 밭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더할 것 없는 밭상이다.

바라보며 서있자니 불현듯 채소밭 이곳저곳이 소란스럽다. 한번쯤은 본 듯한 얼굴들이 둘러앉은 식탁에 아내와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감자꽃 송이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나는 얼른 감자밭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제화 고무신코만행화. Advertisement for handmade shoes with various styles like 'K 샌달', '지압·동갈창', '작각무명', '지압동갈창', '사계절단화', '건강샌들', '망사단화'.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Advertisement for a health product featuring a man's portrait and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민속죽염. Advertisement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salt (minsookjukyeom) with product images and pricing information.